

일자리 못 찾는 MBA 졸업생



▲ 하버드대 경영전문대학원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고용시장의 호황 속에서도 경영전문대학원(MBA) 졸업생들의 구직은 더욱 힘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직장을 구하지 못한 미국 MBA 졸업생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화이트칼라 직장인들은 MBA를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한다. 2년간 최대 20만 달러의 학비와 함께 별도의 생활비까지 스스로 부담해야 하지만, 학위 취득 시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최상위권 경영전문대학원 졸업생들도 구직이 힘들어졌다.

하버드대의 경우 졸업 후 3개월 이내에 직장을 구하지 못한 MBA 졸업생의 비율은 2021년에 8%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0%로 급증했다.

스탠퍼드대도 3개월 이내에 직장을 구하지 못한 MBA 졸업생의 비율이 18%로 늘었다. 지난 2021년에는 이 비율이 9%에 불과했다.

또한 매사추세츠공대(MIT)도 이 비율이 2021년 5%에서 지난해 13%로 급증했다.

이 같은 현상은 MBA 졸업생들이 선호

하는 직장들이 최근 채용에 신중한 분위기로 돌아섰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MBA 졸업생들은 컨설팅이나 첨단기술, 금융 분야에서 직장을 얻기를 원하지만, 최근 1년간 해당 분야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줄었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들이 예전보다 더 신중하게 직원을 채용하는 분위기가 확산한 것도 MBA 졸업생들에게 불리한 대목으로 꼽힌다. 최근 수년간 기업들은 MBA 학위를 지닌 구직자보다는 특정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구직자를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예일대 MBA 진로 담당인 예비게일 카이스는 "기업들이 MBA 졸업생을 채용하는 것은 이들이 경험이 없는 분야에서 쉽게 적응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최근 기업들은 채용 시에 더 보수적으로 지원자의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MBA 졸업생들이 농업과 제조업 등 기존에 MBA 졸업생들의 관심이 적었던 분야에서 취업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텍사스주립대 MBA 진로 담당 브리트니 타이리는 "첨단기술 분야의 채용이 줄었지만, 소비재와 유통업 등에 취업하는 졸업생은 증가했다"고 말했다.

5월1일까지 한 대학에 '커밋'하라

5월1일은 칼리지 '디시전 데이' (Decision Day) 라고 불린다. 디시전 데이는 진학할 대학을 결정하는 마감일로 입시의 정점을 찍는 날이다.

교육 컨설팅 그룹 '어드미션 마스터즈(ADMISSION MASTERS)' (blog.naver.com/amseoulkorea)의 Richard Vincent Kim 컨설턴트에 따르면 입시 결과를 보고 12학년생들은 가을학기에 다닐 대학을 정해서 이날까지 해당 대학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결정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특정 대학에 진학하겠다고 '커밋' (commit) 하고 대학에 디파짓을 납부하지만 나중에 상황이 확 바뀐다면 그 대학에 가지 않아도 무방하다.

웨이팅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대학으로부터 5월1일 이후에 합격통보를 받은 학생 중 상당수가 실제로 디시전 데이 이전에 커밋한 대학으로 진학을 포기한다. 2017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최소한 4개의 리버럴 아츠 칼리지(LAC)가 5월 1일까지 커밋하지 않은 합격생에게 연락을 취했다. 약속 내용이 모호하기는 했지만 이들 4개 대학은 해당 학생이 진학을 결심한다면 재정보조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했다. 대학이 이런 암시를 줄 경우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12학년생들은 5월 1일까지 반드시 진학할 대학을 결정하고 등록의사를 표시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만약 다른 대학에서 더 나은 재정보조 패키지를 제시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A 대학에 커밋을 했더라도 B 대학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면 A 대학에 한 커밋 결정을 취소해도 될까?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학생이 5월 1

일까지 한 대학에 커밋하지 않고 기다린다면 유리한 점은 무엇일까? 대부분 대학은 5월 1일이 디시전 데이라고 밝히지만 이 방침이 매우 엄격한 것은 아니다. 어쩌면 내가 가장 가고 싶었던 대학의 재정 보조 패키지가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더 나은 재정 보조 액수를 제시한 다른 대학을 고려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현실적으로 재정 문제는 대학을 선택할 때 주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이다. 만약 최종 결정을 보류하고 5월 1일까지 커밋하지 않는다면 의외로 더 좋은 재정 보조 제안이 올 가능성이 있다. 물론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커밋하지 않을 경우 불리한 점은 무엇일까? 단점은 합격생 자리를 완전히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실 5월 1일이 지난 후 많은 대학들은 정원을 채우기 위해 대기자 명단에 든 학생들에게 합격통보를 한다. 그러므로 내가 디시전 데이까지 커밋하지 않는다 같은 대학에 합격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대기자에게 내 자리를 내줄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럼 대학에 커밋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만약 내가 탑 초이스 대학에 합격했고 재정 보조를 적절하게 받았다면 당연히 커밋해야 할 것이다. 가장 가고 싶은 대학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확률은 매우 낮다. 설사 어느 정도 확률이 있다고 한들, 드림스쿨이 적당한 패키지를 제안했을 때 이것을 마다하고 다른 대학의 조건을 쇼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래도 더 나은 제안을 기대하고 5월 1일까지 최종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합격한 자리마저 놓치고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다.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캐비닛
윈도우/ 지붕수리
전기/ 플러밍
각종 리모델링

작은일도 합니다!

Kim's Handyman
562.833.0766

Home Remodeling